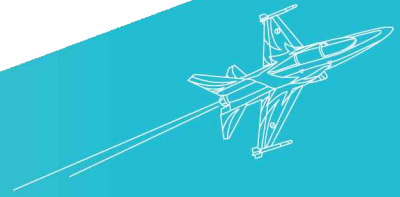


뉴스사천 신년 인터뷰 자료



뉴스사천 신년 인터뷰

1. 민선 8기 사천시장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쉽지 않았지만 달려왔는데요. 나름의 성과와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코로나로 상황이 매우 어려웠는데, 12만 시민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작지만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성과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우리 사천시로 확정지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꼽자면,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사천형 긴급재난지원금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물가상승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우리 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 아쉬운 점은 있을까요?

예, 지난 6개월 동안 12만 시민 여러분과 900여 명의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많은 성과를 이뤄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삶에
조그마한 용기와 희망은 되었지만,

피부로 와 닿을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민선 8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올해는 이런 아쉬움을 발판 삼아 시민들이 행복한
행복도시 사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3. 올해(2023년)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나 시책을 듣고
싶습니다.(큰 틀에서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청은 별도 질문)

사천읍을 비롯한 7개 읍면 지역은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 삼천포 동지역은 해양관광 거점도시
이렇게 두 트랙을 사천시의 미래비전으로 삼고,
다양한 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 50년, 미래 100년은 두 트랙의
성공여부에 따라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자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선진국형 산업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은 기술집약산업이기 때문에
한 곳에 집약해야 사업의 효율성, 물류비용,
기술교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천읍을 중심으로 7개 읍·면 지역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한국의 시애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남해안 청정 해양도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양휴양 관광도시로 가꾸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항공산업 못지않게 청정바다의
해양관광 자원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려해상 중심지인 사천의 5개 섬을 연결하는
삼천포 무지개빛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초양도 대관람차 설치사업으로 한층 더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해양휴양 관광도시로
조성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삼천포 동지역은 분명히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관광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4. 민선 8기 들어 첫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는 어떤 구상과 의미를 담았나요?

민선 8기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을 실현하기 위한 틀을 갖추는데 초점을 두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우주항공청 조기 설치, 미래 신사업 육성, 투자유치와 해양수산 분야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 TF팀을 신설해 우주항공청 설치를 앞당기고, 미래 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미래산업팀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매력 있는 투자 도시가 되기 위해 기업의 컨트롤 타워인 투자유치산단과를 설치했으며,

해양수산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문화관광수산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해양보전팀을 신설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보강에도 힘썼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경제팀에서 소상공인팀을, 아동청소년팀에서 아동보호팀을, 동물방역팀에서 동물복지팀을, 건축허가에서 건축신고팀을 각각 분리·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민선 8기 사천시정이 올곧게 나아갈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오롯이 시민만 보고 묵묵히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지난 11월 28일 정부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의 새로운 경제 엔진이 될까요?

예.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2040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까지 계획대로 육성해나간다면,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6. 사천시로서는 정주여건 개선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준비사항을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 시는 지난 5월 산·학·관·연 12개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실무 TF팀을
본격 출범시킨 뒤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상업공간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정주여건을 위한 인프라 구성부터 지원시책 마련까지
우주항공청 설치에 따른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7. 우주항공청 설치로 어떤 경제효과를 볼까요?

우리나라 항공산업 중심도시인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최대 최고 우주제조업 소재지로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최선봉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주항공청 조직의 신설로 인한 인구 증대의 측면을 벗어나, 우주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정주 여건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우리 시만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넘어 전국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사천시가 출자·출연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기관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시에는 시설관리공단,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사천문화재단,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 있습니다.

사천시는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 등 전면적인 점검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사천시 지방공공

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공단의 공사 전환을 위한
타당성 검토, 적자운영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단되었던 에어쇼 재단 설립의 대안으로
기존의 재단을 활용해 에어쇼 추진뿐만 아니라
항공우주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과
해양관광도시로서 사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월 말에 중간보고회와 3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이 마무리되면 우리 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그동안 시장님이 강조해온 것처럼 '남강댐 사천만 물폭탄
대응'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강댐은 인공 방수로인 가화천을 통해 우리 시로 엄청난
물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업피해는 물론이고
각종 기반시설의 침수 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 하고자 우리 시는
2022년 11월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국회·환경부·경남도·시민단체·수자원공사가
포함된 남강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강댐과 관련한 각종 현안과 피해에 대해
범시민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10.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축소했는데, 사천시는 오히려 확대했다면서요?

우리 사천시는 어르신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방침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의 예산이 줄었지만,
우리 시는 자체 시비 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해 대비 196명 늘어난 2,168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 온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와
시니어 인생 3모작 기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1.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우리 시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고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지역사랑상품권 100억 원을 1월 10일 발행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별로 특색있는
전통시장 축제를 개최하고,

삼천포 수산시장내 수산물 점포에
위생적이고 깨끗한 해수 공급을 위해
지난해 7월 착공한 해수 인입공사를
오는 5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해수 인입공사가 완료되면 청정 해수공급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어 명품수산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사천경제가 살고
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12.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도전이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고,
실천할 용기가 없는 도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직 시민들의 힘과 응원을 믿고,
우리 시 전략산업 분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시민의 삶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을 위해
저와 함께 열심히 뛰어 봅시다.

2023년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검은 토끼는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잘 뛰어넘어
빠르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부디 올해는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거침없이 성장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